

농어촌공사 지역거점 육성 위한 마암면 중심지활성화사업 성공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지사장 김재홍)는 마암면 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고성군과 총공사비 56억 원으로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이번달 현재 총 공정률 60.54%를 보이며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마암면 도전리 일원을 대상지로

한 이 사업은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경관개선, 주민여량 강화사업 등을 통해 마암면을 농촌발전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9월 착공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관계자는 “지역 내 잠재자원의 특성화 및 농촌의 다원적 기능확

충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고유의 테마를 살려 경쟁력을 갖춘 농촌발전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 생활권 중심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최상의 품질과 안전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성통영거제지사는 마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시 한마암문화마당의 입지선정 과정에서 고성군, 고성군의회와 원활한 소통 및 협력체계를 구축, 유지하며 지역민이 가장 선호하는 최적의 입지를

선정했다.

공사 관계자는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농촌협약 지원, 신규사업 발굴 컨설팅, 지역개발사업의 현안해결 등을 위하여 고성군과 적극 협력하여 최상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민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화 기자